

## 원격근무 늘자 '보스웨어' 감시도 급증



미국에서 원격근무가 증가하면서 직원 감시 프로그램 사용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연합뉴스'가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중대형 기업의 3분의 1이 근로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최근 밝혔다.

윌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부 감시 소프트웨어는 직원의 컴퓨터 화면을 10분마다 한 번씩 캡처하고, 직원이 이용한 앱과 웹사이트의 목록 및 방문시간을 기록하는 기능이 탑재됐다. 회사는 '보스웨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런 감시용 소프트웨어를 컴퓨터나 태블릿, 전화에 깔아 업무용으로 지급하는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액티브 트랙(ActivTrak)과 테라마인드(Teramind) 등이 꼽힌다.

직원 감시 시스템에 대한 학계의 의견은 들로 나뉜다.

한편에서는 감시 도구가 직장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업무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다른 한편에선 윤리적으로 부적절하고 직원 사기를 떨어뜨려 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0년 미국 콜센터 직원 2천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키보드 입력 기록 및 온라인 활동 추적 등 회사의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직원 스트레스 증가, 직무 만족도 감소, 결근율 증가, 퇴직 욕구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shutterstock

## 미국, 부의 양극화 심화 심각 소득 하위 50% 가계 자산 전체의 2% 불과

소득 기준 미국의 하위 50% 가계가 전체 부의 2%만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전날 발간한 보고서에서 미국 가계의 소득 분포를 분석,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9년에서 2019년 사이 미국 가계가 실제 소유한 자산은 38조달러에서 115조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소득 상위 50%에만 집중됐으며, 특히 상위 10%와 1% 가계에 부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소득 상위 10% 구간 가계가 소유한 자산 비율은 해당 기간 64%에서 72%로 늘어났으며, 대부분 증



가는 상위 1% 가계가 이끌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하위 50% 구간 가계의 자산 비중은 전체의 4%에서 2%로 오히려 감소했다.

보고서는 또 소득 하위 25% 구간의 경우 평균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며 중산층 이하 가계의 경제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를 요청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성명에서 "보고서 내용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라며 "부유층에 부가 집중되고 중산층은 갈수록 내팽개쳐지고 있으며, 분노스러운 빚더미만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shutterstock

## 주 연결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확대 설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교통부는 이날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50개 주가 모두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등에서는 최소 4개 이상의 고속 충전기가 설치되는 등 기존 충전소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전기차 충전소 건설은 내년 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 교통부는 지난 6월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처리한 인프라 법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NEVI) 포물러 프로그램'에 따른 이 계획은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했

다. 또 각 충전소는 최소 4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자동차 모델과 무관하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5년간 5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 사업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모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진=shutterstock

1고	엽	2제		3악	천	4후	
갈		5삼	파	전		6각	7성
	8종	자		고			루
	지			9투	약	10구	
	11부	석	12사			더	
13배			실		14위	기	
15탈	16선		17무	궁	화		18허
	19출	퇴	근		20도	토	리

	2	6	7			8	9	
1			6				3	
					5			6
	3	1	8			2		
						7	8	1
7					2			3
					9			2
9	1	3			8			
			1	6				